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8.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9 |
| IV. 국제신인도 | 13 |
| V. 종합의견 | 15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924천 km ² | G D P | 5,682억 달러 (2014년) |
| 인구 | 173.94백만 명 (2014년) | 1 인 당 GDP | 3,266달러 (2014년) |
|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 | 통 화 단 위 | Naira (N) |
| 대외정책 | 친서방 개방정책 | 환 율(달러당) | 158.55 (2014년 평균) |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억 7,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와 5.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부국으로,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한편으로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5년 3월 대선에서 야당의 Muhammadu Buhari가 당선되고 Jonathan 前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깨끗이 인정함에 따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종파간 갈등,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공격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저유가 및 신정부 출범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농업, 통신업,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어 매년 4~5%의 고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석유 부문은 GDP의 14%,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별 비중은 농업 20.6%, 제조업 25.6%, 서비스업 53.8%임.
- 2014년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전년(5.4%) 대비 상승한 7.0%를 기록하였으나,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함께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의 정책시행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4.1%로 하락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는 재정지출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세로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적자 여부와 폭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공부문 임금인상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음.
-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14년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가 계속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3%를 기록하였으며, 선거를 마친 2015년에는 저유가,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收入)이 감소하며 GDP 대비 2.0%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나이라화 가치하락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소비자물가는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2012년까지 수년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지속하다 최근 유류 및 전기 보조금 삭감 등으로 다소 하락하여 8~9%대 수준을 유지중임.

-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 수준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189개국 중 187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144개국 중 141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나이지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175개국 중 136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7개국 중 152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해결과제임.

나.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가스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4년 말 기준 371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와 5.1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 아프리카 1위)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이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36만 배럴(2014년)로 아프리카 1위임. 원유의 약 90%가 남부 Niger Delta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8위의 원유수출국으로서 생산된 원유의 90% 이상이 수출되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인도, 네덜란드, 브라질 순임.
- 나이지리아는 현재 세계 제5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로 총 수출액의 54%를 차지하며, 총 수출액의 31%는 스페인 등 유럽 국가로 수출됨.
- LNG의 연 생산량은 3,470만 톤으로 Bonny 섬에서 생산되며 증산을 위해 Bonny, Brass 등 새로운 지역에서의 LNG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아프리카 제1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1억 7,394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7위임. 따라서 대형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3년에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4억 4,035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중산층의 확대가 내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나이지리아는 2014년 4월 GDP 산정기준 개편을 단행, 2013년 명목 GDP가 81조 나이바로 개편 전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대륙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IMF는 실질GDP 성장률 계산의 기준년도를 최소한 5년마다 갱신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는 지난해까지 20년 이상 1990년을 기준년도로 산정해 왔음.
- 금번 개편을 통해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하고 이전에 GDP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영화, 통신 등의 부문을 포함시킨 결과 GDP 규모가 급증하였음.
: 개편 결과 통신 부문은 2013년 나이지리아 GDP의 9%를 차지한 반면, 석유 부문의 비중은 33%에서 14%로 급감하였음.
- 미국의 컨설팅 그룹 McKinsey & Company는 2014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 경제가 2030년까지 연 평균 7.1% 성장해 GDP 규모가 1.6조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동 보고서는 2030년이면 연간 소득 7,500달러 이상인 나이지리아 가구가 3,500만 가구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확대되면서 현재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빈곤, 전력 부족, 낮은 농업생산성, 높은 주택 및 에너지 가격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음.
- :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1일 생활비가 1달러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2004년 55%에서 2010년 61%로 상승하였으며, 평균 기대수명은 54세에 불과함.

다. 정책성과

□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 - 세계 20대 경제국으로의 도약 목표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 10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Nigeria Vision 20: 2020)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부족,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 요소 개선,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전력 부족과 부정부패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지수임.

□ 정부의 환율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지속

- 저유가 지속과 높아지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나이라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2014년 11월 금리를 1% 포인트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2013년말 미 달러당 환율은 157.26나이라에서 2014년말 169.68나이라로 상승함.
- 환율안정 정책 시행으로 외환보유고 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환율상승으로 외채부담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정부는 환율안정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정부는 외환보유액 소진 없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41개 수입 품목에 대해 외화규제를 실시하였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당 환율은 2015년말 220나이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저유가에 따른 긴축재정 추진

-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4.49조 나이라(미화 225억 달러 규모)로 주요 재정수입(收入)원인 원유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을 추진함.
- 그러나, 전력,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정부예산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폐지, 공공분야 임금 감축,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기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거래

□ 저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석유산업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상품·경상수지의 흑자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4년 전년(3.9%) 대비 축소된 1.1%를 기록하고 2015년에는 -1.3%로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 경상수지 악화로 감소 추세

- 2010년말 323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흑자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3년 말 42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정부가 수입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재개함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이 34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비율도 3.8개월로 전년(4.7개월)보다 악화되었음. 2015년에도 환율 방어 정책 유지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외환보유액은 295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3.1개월로 축소될 전망이다.

□ 외채상황은 채무재조정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상태

- 2000년대 초반에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5년 승인된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300억 달러)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2014년 말 5.4%로까지 낮아짐. 다만,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2013년 19.6%에서 2014년에는 24.4%로 상승함.
- 2014년 말 D.S.R은 0.5%로 여전히 1%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e | 2015 ^f |
|-------------------|--------|--------|--------|-------------------|-------------------|
| 경 상 수 지 | 12,554 | 20,353 | 20,148 | 6,187 | -6,140 |
| 경 상 수 지 / G D P | 3.0 | 4.4 | 3.9 | 1.1 | -1.3 |
| 상 품 수 지 | 34,716 | 42,318 | 43,767 | 26,790 | 6,532 |
| 수 출 | 96,369 | 95,677 | 95,118 | 83,897 | 54,363 |
| 수 입 | 61,653 | 53,359 | 51,351 | 57,106 | 47,831 |
| 외 환 보 유 액 | 32,640 | 43,830 | 42,847 | 34,469 | 29,528 |
| 총 외 채 잔 액 | 19,478 | 28,100 | 29,090 | 30,893 | 32,393 |
| 총 외 채 잔 액 / G D P | 4.7 | 6.1 | 5.7 | 5.4 | 6.9 |
| D S R | 0.4 | 0.4 | 0.4 | 0.5 | 0.8 |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평화적 정권 교체 완료

- 2015년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All Progressives Congress : APC) 후보 Muhammadu Buhari가 당선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나 시위 없이 Jonathan 前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깨끗이 인정함에 따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이전 선거는 북부(이슬람교도 지역)와 남부(기독교도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목제가 어겨지거나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폭동이 발생함.
-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이지리아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었다고 평가받게 됨.

□ 정치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 전망

-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으나, 정당간, 종파간 갈등, 부정부패, 낮은 생활수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활동 등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개혁에 난항이 예상됨.
- Buhari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위해 신규 인사를 등용한다는 이유로 취임(2015년 5월 29일) 후 2개월이 지난 8월 현재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 하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 재무건전성 확보 등의 선거공약 시행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극심한 빈부격차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임에도 1인당 GDP가 2014년 3,266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2년 인구의 25.7%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있으며 약 67.98%가 극빈선(PPP, 1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인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 나이지리아의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27점으로 175개국 중 136위를 기록함.

□ 종족-종교적 갈등 상황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이슬람)와 남부(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이슬람 율법의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수많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여 나이지리아 사회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에 의한 테러 공격 악화

-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 온건파 세력이 정부군과의 휴전을 선언함에 따라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Boko Haram은 주로 학교와 민가를 습격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마을에 방화하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4월 14일 북동부 Chibok의 여학교를 습격,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음. 2015년 현재 일부 여학생은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219명의 여학생은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

- 1만 명 이상이 살해된 2014년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000명이 Boko Haram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됨.

- 당초 이슬람 율법에 의한 자치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내세웠던 Boko Haram은 그 동안 세력 확장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직원들을 포섭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정치적 극단주의자와 각종 흉악범까지 혼재되어 내부에서도 몇몇 파벌이 형성되는 등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측이 Boko Haram과 평화 정착의 협상을 벌여도 특정 파벌만이 합의하고 다른 파벌들은 합의 내용에 불응하여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 Niger Delta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이 지역의 치안 불안 지속

-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Niger Delta 지역에 소재하여, 이 지역의 치안 안정 여부가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Niger Delta 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등 반군 세력이 석유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5년 250.2만 배럴에서 2008년 211.3만 배럴로 감소하였음.

○ 정부는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여 부분적 성과를 거두어, 일일 원유 생산량도 2014년 236만 배럴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반군 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 생산에 다시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국제 관계

□ Boko Haram 퇴치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2015년 2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차드, 카메룬, 니제르 등 주변국은 Boko Haram 퇴치를 위해 8,700명 규모의 다국적군을 창설하기로 합의 하였음.

○ 부하리 대통령은 7월 말 니제르델타 지역의 지휘관이었던 아바흐 사령관을 다국적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향후 강화된 격퇴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취임 후 차드, 니제르, 카메룬, 베냉을 차례로 방문함.

□ 서방과의 관계 약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 정부가 Boko Haram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8,000여명이 희생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서방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나이지리아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2014년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하였음.

○ 인도가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대두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2009년 34억 달러에서 2014년 2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가스전 개발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Chevron, ExxonMobil, Eni, Total 등 서방 석유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음.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내의 리더이자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은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 2005년 파리 클럽 회원국들은 합의를 통해 300억 달러의 나이지리아 외채 중 60%인 18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년 300억 달러의 외채를 120억 달러에 매입하는 방식(buy back)으로 채무를 탕감 받음.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 2014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5억 390만 달러, 중장기 16억 7,720만 달러 총 21억 8,110만 달러로 연체 잔액은 총외채의 0.65%에 해당하는 1,420만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 외채규모는 한국무역보험공사(7억 달러), 스웨덴(4.6억 달러), 벨기에(0.4억 달러) 순으로 크며, 영국 ECA 앞 연체금액은 830만 달러로 가장 많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0. 2. 22. (북한과는 1976. 6. 25.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이종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정('06), 문화 및 교육 협력협정('12)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1위의 교역대상국

○ 2014년 기준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1의 교역 대상국으로, 201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44.7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레일 및 철구조물, 합성수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약 13.8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약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LNG 총 수입액의 8.2%를 차지 하여 우리나라의 제5위 LNG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표 4 >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2012 | 2013 | 2014 | 주요 품목 |
|-----|-------|-------|-------|----------------------|
| 수 출 | 854 | 1,571 | 1,378 | 레일 및 철구조물, 합성수지, 자동차 |
| 수 입 | 1,466 | 2,307 | 3,095 | 천연가스, LPG, 원유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5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38건, 2.95억 달러

V. 종합의견

- 나이지리아는 석유 생산과 농업, 금융 등 비석유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4년 역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7.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 그러나,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나이라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전환, 재정수지 적자 유지, 8~9%대의 물가상승세 지속 등 일부 경제지표는 악화세를 보이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2015년 대선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정당간, 종파간 갈등, 부정부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Boko Haram의 테러 활동 등으로 정치적 안정성 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 환율방어 정책과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외채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5.4%, D.S.R 0.5% 등 외채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의 외채상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 사 역 임민교 (☎02-3779-5727)
E-mail: ymg@koreaexim.go.kr